

# 한일어의 관형절에 나타나는 시제·상의 대응관계

— 「루」(ル) 「다」(夕)에 대응하는 「은·는·던·을」을 중심으로—

송 정 혜\*

## 차 례

1. 들어가며
2. 관형절에 나타나는 시제의 대응관계
3. 마치며

## 1. 들어가며

한국인 일본어학습자가 일본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시제·상이 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시제·상의 대응관계를 밝히고 일본어 교육의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어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루」(ル)와 「다」(夕)뿐이지만 한국어는 「㉠·있·있었·겠·을·느·은·더」가 있고 각각 복잡한 통합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체계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일본어 「ル」는 한국어 「은·는다」와, 「夕」는 「있다」와 대응한다고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 「ル」는 보통 미래를, 「夕」는 과거를 나타내며, 한국어 「은·는다」는 현재를, 「있다」는 과거를 나타낸다. 일본어의 현재를 나타내는 형식은 「테이루」(テイル)이며, 「テイル」형식이 없는 상태동사 등이 「ル」로 현재를 나타낸다. 관형절의 형식도 일본어에서는 문말(文末)과 같은 형태가 쓰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은·는·던·을」로 변화하고 거기에 「있」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관형절로 범위를 좁히고 「스루·시타」(スル·シタ)와 「은·는·던·을」·「있」의 대응관계를 살펴보았다. 주된 고찰 대상은 관형절의 성격이 가장 잘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나타나 있는 「관계절」<sup>1)</sup>이다.

분석방법으로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된 책을 준비했다. 2권의 본문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일본어 책에 나타난 관형절을 발췌하고 한국어 본문에서 대응되는 문장을 모두 찾아냈다. 조사의 대상은 현대어이며 조사한 문장은 700개 정도이다.

연구자료

일본어 텍스트 金大中, 『わが人生、わが道』(金淳鎬譯, 千早書房, 2000)

한국어 텍스트 김대중, 『나의 삶 나의 길』, 도서출판 산하, 1997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문 기사를 참고로 했다. 연구자료와 구별하기 위하여 각 예문에 표시를 붙였다.

인터넷 신문번역문 (중앙일보) <http://www Joins.com/>

본고에서는 「テイル・テイタ」의 분석은 하지 않지만 「던」과의 대응관계를 살피는데 일부 포함시켰다.

## 2. 관형절에 나타나는 시상의 대응관계

### 2.1. 관형절의 시제에 대하여

「시제」는 일반적으로 기준시점(基準時點)과 사건시(事件時)의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범주로서, 사건이 기준시점보다 앞이나 뒤 혹은 동시에 일어났는가를 다루는 개념이며, 「상」<sup>2)</sup>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완결되었는가 완결되지 않았는가의 과정을 다루는 개념이다. 관형절의 시제는 지금까지 다양하게 논의되어왔는데 서법인지 시제인지 서법과 시제가 혼합된 것인지 여전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된 고찰 대상이 「관계절」이기 때문에 시제를 인정한다. 「관계절」은 비교적 시제가 뚜렷이 나타난다. 「명사구 보문」은 일부만을 분석한다.<sup>3)</sup>

관형절의 시제는 절대시제(발화시 기준시절)와 상대시제(주절시 기준시절)의 두가지가

있다. 발화시 기준시절과 주절시 기준시절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대해서는, 미하라<sup>4)</sup>는 종속절과 주절의 형식을 「スル」「シテイル」라면 「ル」형, 「シタ」「シテイタ」라면 「タ」형으로 하고, 「ル형-ル형」「타형-타형」「ル형-타형」「타형-ル형」의 네 가지 형식으로 분류한 뒤, 각각 형식에서 원리를 추출했다. 종속절과 주절의 전후관계에서 종속절이 과거라면 (종속절→주절)로 표시된다.

「예문-관계절」

a ル형-ル형

- (1) [引っ越してくる人] が家を見にくるになっている。

[이사 올 사람] 이 집을 보러 오기로 했다. (발화시→주절→종속절)

타형-타형

- (2) 福井交通の運轉手が [越前海岸で自殺した女性] をそこまで車に乗せて行った (らしい)

후쿠이 교통 운전사가 [에치젠 해안에서 자살한 여성]을 거기까지 차에 태워간(것 같다) (주절→종속절→발화시)

b ル형-타형

- (3) [コンピューターに詳しい情報學科出身の學生] を雇用した。

[컴퓨터에 정통한 정보학과 출신 학생]을 고용했다. (종속절=주절→발화시)

타형-ル형

- (4) K大は [フィールズ賞を取った學者] を優遇する(豫定だ)。

K대는 [플리처 상을 탄 학자]를 대우 할 (예정이다).

(종속절→발화시→주절/발화시→종속절→주절)<sup>5)</sup>

(1)은 종속절의 사건이 발화시·주절시보다 미래에 일어났기 때문에 발화시 기준·주절시 기준의 양쪽이 다 가능하지만, (2)는 종속절의 사건이 주절보다 미래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タ」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발화시 기준이다. (3)은 종속절의 사건과 주절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며 발화시보다 과거이다. 그래서 주절시 기준이 된다. (4)는 종속절의 사건이 주절보다 과거에 일어났는데, 발화시보다 앞선 사건, 나중에 일어난 사건 어느 쪽도 될 수 있다. 발화시보다 미래에 일어난 사건일 경우 주절시 기준이 된다. 이상에서 기준시점을 「시점의 원리」(視點の原理)로 일반화할 수 있다.

- a. 주절·종속절의 시제형식이 동일 시제형식일 경우, 종속절의 시제형식은 발화시 시점(視點)에 의해 결정된다.
- b. 주절·종속절의 시제형식이 다른 시제형식일 경우, 종속절의 시제형식은 주절시 시점(視點)에 의해 결정된다.<sup>6)</sup>

니와<sup>7)</sup>는 미하라의 설에 새로운 시점(視點)을 첨가시켰다.

(3)' (今は) [コンピューターに詳しいあの社員] は採用當時は何も知らなかった。<sup>8)</sup>

(지금은) [컴퓨터에 정통한 그 사원]은 채용 당시엔 아무것도 몰랐었다.

(5) テントを借りた人は (事前に/後で) 使用料を拂いました<sup>\*</sup>

텐트를 빌린 사람은 (사전에/후에)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주절→종속절→발화시/종속절→주절→발화)<sup>9)</sup>

이렇게 할 때 (3)'은 「詳しい」(정통한)가 「知らなかった」(몰랐었다)를 기준으로 그보다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주절시를 기준으로 그보다 뒤에 일어났다고는 보기 어렵고 발화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5)의 「夕형-夕형」형식이 (주절→종속절→발화시)가 될 경우, 항상 발화시가 기준시점이 되지만 (종속절→주절→발화시)가 될 경우 발화시 기준과 주절시 기준 어느 쪽도 가능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원리를 추출할 수 있다.

【ル형·夕형이 발화시 기준·주절시 기준을 나타낼 수 있는 범위】

「ル형-ル형」은 (발화시→주절시)라는 순서이므로 발화시 혹은 발화시 이후·주절시 이전의 사건은 반드시 발화시 기준으로 표현되고, 주절시 혹은 주절시 이후의 사건은 발화시 기준도 주절시 기준도 될 수 있다.

「夕형-ル형」은 (발화시→주절시)라는 순서이므로 발화시 혹은 발화시 이후·주절시 이전의 사건은 반드시 주절시 기준으로 표현되고, 발화시 이전의 사건은 발화시 기준도 주절시 기준도 될 수 있다.

「ル형-夕형」은 (주절시→발화시)라는 순서이므로 주절시 혹은 주절시 이후·발화시 이전의 사건은 반드시 주절시 기준으로 표현되고, 발화시 혹은 발화시 이후의 사건은 발화시 기준도 주절시 기준도 될 수 있다.

「夕형-夕형」은 (주절시→발화시)라는 순서이므로 주절시 혹은 주절시 이후·발화시 이전의 사건은 반드시 발화시 기준으로 표현되고, 주절시 이전의 사건은 발화시 기준도

주절시 기준도 될 수 있다.<sup>10)</sup>

본고에서는 니와의 고찰 방법을 참고로 관형절의 「ル」형 「タ」형과 주절의 「ル」형 「タ」형을 분류하며 한국어 형태소 「은·는·던·을」과 「있」과의 대응관계를 살핀다.

## 2.2. 「ル」에 대응하는 「는」과 「은」과 「을」

### <ル-는>

#### ① 기준시점의 상태

- (6) しかし、海から吹く風は、なおも肌を刺すような冷たさだった。  
 (6)' 그러나 바다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직도 살을 에듯 차갑기만 했다.

#### ② 눈 앞의 행위

- (7) 静かにうなづく妻の目には涙があった。  
 (7)'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아내를 보니 눈가에는 벌써 이슬이 맺혀 있었다.

#### ③ 미래의 일

- (8) ワシントンの外交消息筋は「今年7月末にベトナムのハノイで開かれるアセアン地域フォーラム(ARF)外相會議に先立ち、アジアの傳統的な同盟國との關係確認の意味で、パウエル長官が韓國と日本を訪問する必要性について國務省が検討中」と話した。  
 (8)'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오는 7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ARF)외무장관회담에 앞서 전통적인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 확인 차원에서 파월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필요성을 국무부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01.04.16 政治)

#### ④ 심리적 상태

- (9) 韓國がうらやましいとまで言って過去を後悔する彼に對して、私ができることはその程度のことしかなかった。  
 (9)' 한국이 부럽다고까지 말하면서 지난일을 후회하는 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위로

가 그 이상은 없었다.

⑤ 반복적 행위

(10) 私が生まれたに衣島は、木浦から多島海に向けて、一日に二、三回ずつ出る船便で2時間あまり、島と島の間を縫っていけば現れる。

(10)' 내가 태어났던 하의도는 목포에서 다도해로 하루 두세 차례씩 왕래하는 배편으로 두어 시간 남짓 섬과 섬 사이를 누비듯 헤쳐가다 보면 나타난다.

⑥ 속성

(11) 大統領は、世界を舞臺に奔走するセールスマンの役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11)' 대통령은 세계를 무대로 뛰는 세일즈맨의 역할을 해야 한다.

⑦ 관계동사

(12) しかしわが國で「政權交代」の持つ意味は、それほど單純ではない。

(12)'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정권 교체'가 갖는 의미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①에서 ⑦은 「ル」와 「는」이 대응한다. ②의 「눈 앞의 행위」는 「ル」보다 「는」이 더욱 적극적인 표현이다. 「는」은 미완료를 나타내는 형식이지만 「ル」는 완성상(完成相)이며 보통 동작의 과정을 나타내지 못한다. 또 「ル」는 비과거형이므로 상대동사 이외의 동사는 보통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②와 같은 경우 「는」과 대응되는 일본어는 「テイル」라고 생각된다. ⑤의 「반복적 행위」 ⑥의 「속성」 ⑦의 「관계동사」는 시제가 없어지는 표현이다.<sup>11)</sup> 반복은 어떤 동작이 되풀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과정이 빈번해지면 점점 잠재적인 속성이 되어 시제도 없어진다.

<ル-은>

① 형용사적 동사

(13) だが、これは一九三〇年代の話であり、今日とは全く違う時代のことなのだ。

(13)' 요즘 같은 시대와는 사뭇 다른 시대의 일인 것이다.

한국어 형용사가 문말(文末)에 올 경우 「Φ」로, 관형절에 올 경우 어미가 「은」으로 변한다. 한국어의 「는」은 형용사의 어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일본어의 형용사적 동사는 모두 「은」과 대응된다. 시제가 없기 때문에 「違う」(다르다)가 「違った」(달랐다)가 되더라도 의미는 똑같다.

## ② 관계동사

- (14) 朴政權は私に關するニュースは一切報道を禁じていたが、  
 (14)' 박 정권은 나에게 대한 소식을 일절 신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가

## <ル-을>

- (15) もうすぐ開かれる裁判も形式に過ぎません。  
 (15)' 곧 열릴 재판도 형식에 지나지 않죠.”

미래의 일은, 일본어에서는 「ル」로 표현되지만 한국어에서는 「는」과 「을」로 표현된다. 「을」이 문말에 나타날 경우, 「을(-르 것)」이 「겠」과 더불어 양태(modality)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다. 「을」은 포괄적인 과거의 경험에 바탕을 둔 판단을, 「겠」은 화자가 있는 장소에서 타자 배제적(他者 排除的)인 판단을 나타낸다고 한다. 관형절에는 양태적 요소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문말의 「겠」이 관형절에 올 경우 양태적 요소가 없어지고 「을」로 나타난다. 「는」과 「을」이 같은 미래의 일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는」은 현재와 연결된 미래에 꼭 일어나는 사건(사실성)을, 「을」은 확실성이란 시점(視點)에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 2.3. 「タ」에 대응하는 「은」과 「있던」과 「는」

### <タ-은>

- (16) わが國、我が民族の花園に咲くであろう民主主義は、私の流した血で、さらに赤く華麗に咲くだろう。  
 (16) 내 나라 내 민족의 화단에서 자라날 민주주의는 내가 흘린 피로 더욱 붉고 화려하리니..

- (17) 私は、異性を心から愛することのできなかつた人には、何らの魅力も感じない。
- (17)' 나는 평생을 통해 이성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 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 (18) 他の詩人と同じく、真っ白い半袖Tシャツのユニフォームを着たその老人は、詩人らの前で一曲の歌を歌った。
- (18)' 여느 시인과 다름없이 하얀 반팔 티셔츠 유니폼을 입은 그 노인은 시인들 앞에서 노래 한곡을 불렀다. (2001.3.27 詩人と財閥)

### <타-었>

- (19) 數年前上映されたパンソリ映畫『ソビョンジェ』の主人公たちをいとおしく思う理由もここにある。
- (19)' 몇 년 전 상영됐던 판소리 영화 '서편제'와 그 영화의 남녀 주인공인 김명곤 오정해를 내가 특별히 아끼는 이유는 바로 거기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0) その日私は、自分で作った萩のムチで、ふくらはぎに血がにじみ出るほどにたたかれた。
- (20)' 그리고 그날, 내가 직접 부엌에서 잘라와야 했던 싸리나무 회초리로 장단지에 핏물이 배어나올만큼 맞았다.

(19)는 (관형절→주절=발화시)라는 순서로 일어난 것에 비해 (16)는 (발화시→관형절→주절)이라는 순서로 일어나며 관형절의 사건이 발화시보다 미래의 일이다. 「있던」에는 이런 용법(用法)이 없다. 「있」의 경우 관형절 사건의 행위 주체가 명확한 데 비해 「은」의 경우에는 (17) 「愛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人」의 「히토」(人)와 같이 특정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인지 알 수가 없다. (「愛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는 「人」의 속성이 되어 있다.) 「있던」은 특정주체에 의한 관형절의 사건이 기준시점의 사건과 대비관계에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쓰이지만, 「은」은 기준시점에 이미 일어난(일어난 시간은 특정되지 않은) 동작이나 상태, 변화를 나타낼 때 잘 쓰인다. (18)의 「着た」·「입은」은 재귀동사이며, 주절과 동시에 일어난 결과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에서 「은」에는 시제가 없고, 완료라고 하는 의견도 많다.<sup>12)</sup>

이효상은 관형절의 시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관형절을 표시하는 형태소는 {-(-으)ㄴ} 과 {-(-으)ㄹ} 둘 뿐이다. {-(-으)ㄴ} 과 {-(-으)ㄹ} 의 대립은 시제의 대립이 아니라, 현실 관형형과 비현실 관형형을 표시하는 서법(mood)의 대립이다.

현실 관형절의 시상체계의 성격은 {-느-} 와 {-더-} , 그리고 무표지가 대립하는 삼각체계로서, ..... 사건을 총체적으로 기술하느냐, 아니면 벌어지는 사건의 단면, 즉 사건의 현장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기술하느냐 하는 총체성(totality)차원의 상체계이다.<sup>13)</sup>

이효상에 의하면 「은」과 「을」은 서법인 관형형어미이며, 「느」의 「느」, 「은」의 「Φ」, 「던」의 「더」가 시제어미이다. 또 관형절의 시제 형태소인 「느」는 비과거 미완료, 「더」는 과거 미완료, 「Φ」는 과거 완료를 나타낸다. 「느」는 습관적·일반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며, 「더」는 과거진행·과거의 지속적 상태를 나타내며, 똑같이 화자의 시점(視點)은 사건이 일어나 있는 현장에 있다. 「Φ」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 내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밖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낸다. 「夕」에 대응되는 「은」은 과거완료이며 서법의 의미도 포함된다. 「있던」의 의미는 「앞서 일어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는 이효상과 같이 과거(시제)나 완료(상)도 하나의 동사 형태에 동시(同時)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지만 서법에 관해서는 앞으로 포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상기 이외의 夕-은>

(21) まさに徹底した「獨房」である。

(21)' 철저한 독방이었다.

(22) 後日、私は私の擔當捜査官からこれに關連した話を聞くことができた。

(22)' 훗날 나는 나를 담당한 수사관으로부터 그 일과 관련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21)의 「徹底した」이 문말에 올 경우 「徹底している」가 되어 한국어와 다르다. 한국어는 관형절에서는 「은」, 문말에서는 「철저하다」가 되며 시제는 「Φ」가 된다. (21)은 형용사적 동사, (22)은 관계동사이다.

## <夕-는>

- (23) しかし「情報政治」の實態が變わるだろうと考えた人は誰もいなかった。  
 (23)' 그러나 '정보정치'의 실태가 변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관형절에 나타난 「夕」와 「는」의 대응관계는 기준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의미적으로는 똑같다. (23)는 일본어의 경우 <夕형-夕형>이며 주절과 관형절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발화시 기준이 된다. 한국어의 <는-있> 형식의 경우 주절 사건과 관형절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관형절의 시제는 주절시가 기준이다. 「는」은 적극적으로 현재의 상태·행위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일본어 「ル」는 상태를 나타낼 수는 있어도 행위나 변화를 나타내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夕」와 「는」이 대응되는 것은 「ル」는 원래 비과거형이라서 현재에 일어난 다양한 상태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일어나 있는 사건은 「夕」로 표현되지만, 한국어는 「는」이 기준시점의 다양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 2.4. 「ル」 「夕」에 대응하는 「던」

### ① 상태동사

- (24) 私たちはその足で港近くにある自分の家に行き、天井の裏側を廣くして隠れた。  
 (24)' 우리는 그 길로 항구 가까이 있던 우리집으로 가서 천장 뒤쪽을 넓히고 거기에 숨었다.  
 (25) あるとき、日本に住む知り合いが私の家に来て、私を日本へ連れて行きたいと言ってくれた。  
 (25)' 한번은 일본에 살던 친지 한 분이 우리집에 왔다가 나를 일본으로 데려가 공부를 시키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다.

문말에 나타난 「던」에 대응되는 일본어 형태소는 없다. 관형절에 나타난 「던」도 일본어에는 없는 표현이다. (24)는, 상태동사 「아루」(ある)가 「던」과 대응하며, 주절=관형절이라는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일본어는 주절시 기준, 한국어는 발화시 기준이다. 이런 경우 일본어는 「夕」가 되고 한국어는 「는」이 되더라도 의미는 똑같다. (25)의 「스무」(住む)가 주절과 동시의 상태를 나타낼 경우 「ル」형만이 가능하다. 「스다」(住んだ)가 되면 과

거에 완료된 사건이 되므로 「던」처럼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시제가 될 수 없다. 「던」은 사건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점(視點)이 어떤 장면으로 이동하며 그 내면을 표현하는 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일본어 상대동사의 「ル・タ」형에 대응되고 주절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일본어에는 「던」과 같은 특별한 형식이 없다. 다만 동사의 의미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스무」(住む)와 같은 동사가 주절시의 상태를 나타낼 경우 일본어는 「ル」형만 가능하지만 한국어는 절대시제(발화시 기준)형식으로 「던」이 미완료의 과거 장면을 나타낼 수 있다.

## ② 계속동사

- (26) 15日(日曜日)、ロサンゼルス<sup>1)</sup>のウィルシャーCC(パー72・6349ヤード)で最終日を迎えたアメリカLPGAツアーオフィスデボ(全賞金80萬ドル)。シーズン初の勝利を狙っていたキム・ミヒョンはボギーなしのバディー7つでコースレコードである7アンダーパー65打を記録した。
- (26)' 15일(일요일) 로스앤젤레스 윌셔CC(파726349야드)에서 끝난 미국 LPGA투어 오피스디포(총상금 80만달러). 시즌 첫 승을 노리던 김미현은 보기 없이 버디 7개로 코스 레코드인 7언더파65타를 쳤다. (2001.04.15 김미현 연장전서 2위)
- (27) 私は沈黙を破って、ホテルの一室で一緒にテレビを見ていた友人に言った。
- (27)' 나는 호텔 방에서 함께 텔레비전 뉴스를 보던 친구에게 침묵을 깨고 말했다.

여기에서는 「テイタ」에 대응되는 「던」을 살펴보았다. 동사의 진행과정이나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낼 때 「テイタ」와 「던」이 대응한다.

## ③ 반복적 행위

- (28) その頃の新聞がよく扱った内容だった。
- (28)' 그 무렵의 신문들이 흔히 다루던 그런 내용이였다.

반복적 행위를 나타낼 때 「タ」와 「던」이 대응한다.

## ④ 기타(명사구 보문에 포함됨)

- (29) 「統一」という言葉を口にするだけで「アカ」だとか「共産党」呼ばわりされ

た時代だ。

(29) ‘통일’이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빨갱이’라든가 ‘공산당’이라고 불리던 시대였다.

「던」은 시간적 폭이 있는 피수식명사의 관형형어미가 될 수 있다.<sup>14)</sup>

## 2.5. 「명사구 보문」

2.2.부터 2.4.는 「관계절」에 관한 고찰 내용이다. 「명사구 보문」이란 피수식명사가 관형절 내부의 성분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말하는데, 피수식명사의 성격에 따라 「ル・タ」, 「는・은・을」이 제한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피수식명사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ル-는>

- (30) 金康壽の目にも落ち着かない様子がありありと感じられた。  
 (30)' 김강수가 보기에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게 역력했다.  
 (31) 裁判長の唇の動きをつうじて死刑か無期懲役かを感知する間もなく、その緊張を破る聲が響き渡った。  
 (31)' 재판장의 입 모양새를 통해 사형인지 무기징역인지 미처 감지하기도 전에 그 긴장을 깨뜨리는 목소리가 범정에 울려 퍼졌다.  
 (32) 京畿道知事選の候補者選びでも、當選できそうな人には必死で反対し、落選が確実な人を推薦する愚を犯した。  
 (32)'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 때도 꼭 당선될 사람은 결사 반대하고 낙선될 게 뻔한 사람을 공천하는 우를 범하고 말했다.  
 (33) いつ召集令状がくるかもしれない状況で、私たちは不安な新婚生活を送った。  
 (33)' 언제 소집 영장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불안한 신혼 생활을 했다.  
 (34) 私もやはり冬を耐えぬき、春を準備する氣持ちでここまで來た。  
 (34)' 나 또한 겨울을 이기고 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35) 東ドイツの國營通信、モスクワ放送、北京放送もそろって韓國を非難する報道を行つた。  
 (35)' 동독의 국영통신, 모스크바 방송, 북경 방송에서도 빠짐없이 한국을 비난하는 보도를 했다.  
 (36) 野党側のこのような主張はアメリカとの隙間をさらに深くし、結果として朴政權とアメリカの關係を密着させる結果を生んでしまった。

- (36) 그 대신 박 정권과 미국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켜 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37) ところがどうしたことから、囚人を表に連れ出す作業がしばらく中斷された。  
 (37) 그런데 어떤 일인지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 한참 동안 중단되었다.

<タ-은>

- (38) 私は千軍萬馬を得た氣持だよ」  
 (38) 내가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래오.”  
 (39) 今でも釜山の郊外だった甘川の細道を歩いた思い出が生々しい。  
 (39) 지금도 부산 교외였던 감천의 오솔길을 함께 걷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를 정도이다.  
 (40) 民主主義のために闘おうと互いに勵まし合い、同志として結ばれた關係だった。  
 (40)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자고 서로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동지’로 맺어진 관계였다.

<ル-을>

- (41) ソウルにいさえずれば、なんとしても闘う手段を求めることができたろう。  
 (41) 서울에만 있었다더라도 어떻게든 싸워볼 수단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42) 彼の話を聞く必要もなかった。  
 (42) 그의 말을 더 들어볼 필요도 없었다.  
 (43) ソウルにはその翌日の5月16日に戻る豫定だった。  
 (43) 서울에는 그 다음날인 5월 16일에 올라갈 예정이었다.  
 (44) ですが、あなたがほかの思いに浸っていたときにイエス様を見たのであれば、それは実際に現れた可能性があります。  
 (44) 그런데 당신이 다른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예수님을 본 것이라면 그분이 실제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마치며

이상 한일어의 관형절에 나타나는 시상의 대응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밝

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① 「ル」가 「는」과 대응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상태」 「눈 앞의 행위」 「미래의 일」 「심리적 상태」 「반복적 행위」 「속성」 「관계동사」 동사 등이 있고, 「ル」가 「은」과 대응되는 경우에는 「형용사적 동사」 「관계동사」가, 「ル」가 「을」과 대응되는 경우에는 「미래의 일」이 있다. 「는」은 미완료료를 나타내는 형식이며 「ル」는 완성상(完成相)이다. 그래서 「눈 앞의 행위」는 「ル」보다 「는」이 더 적극적인 표현이다.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는」은 사실성이 강하고 「을」은 확실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② 「タ」가 「었던」과 대응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특정주체에 의한 특정시간에 일어난 일에 쓰이며, 관형절의 사건과 주절 사건이 시간적 연관성이 있는 것이 많다.

③ 「タ」는 주절시를 기준으로 발화시보다 미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은」과 대응한다. 또 언제 일어났는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재귀동사나 변화동사가 기준시점의 상태를 나타낼 때도 쓰인다. 일본어의 형용사적 동사나 관계동사에도 대응한다.

④ 「タ」가 「는」과 대응되는 것은 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한국어 「는」은 넓은 의미로 기준시점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일본어 「ル」는 원래 비과거형이고 이미 일어나 있는 사건을 나타낼 때는 「タ」형이 쓰인다.

⑤ 「ル」 「タ」가 「던」과 대응되는 경우는 주로 상태동사가 주절시의 상태를 나타낼 때이다. 「タ」와 대응될 경우 기준시점이 같고 (발화시), 「ル」와 대응될 경우 기준시점이 다르다 (주절시). 일본어 「タ」는 완성상(完成相)이며 「던」은 미완료료를 나타내는 형식이다. 그래서 「住む」와 같은 동사는 「ル」와 「던」이 대응한다. 일본어의 과거 미완료료를 나타내는 형식은 「テイタ」이며 동사의 진행과정을 나타낼 때 「던」이 「テイタ」와 대응된다. 또 반복적 행위, 폭이 있는 명사의 수식어미가 될 경우 「タ」와 대응된다.

⑥ 「명사구 보문」은 피수식명사의 성격에 따라 앞에 오는 동사의 형태가 고유적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ル-는」이 대응되는 것은 수식구(修飾句)가 피수식명사의 내용을 나타낼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タ-은」은 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을 나타낼 때 대응되며, 「ル-을」은 비현실의 사건을 나타낼 때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sup>15)</sup>

문제점으로는 발췌한 예문이 균형 있게 모이지 않았고, 또 예문의 수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고찰은 일본어에서 본 한국어를 분석했기 때문에 「タ」에 대응되는 「은」·「었

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었지만 「던」에 대응되는 「タ」와 「テイタ」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간단히 다루었다. 한국어로 시점을 옮길 경우 「는·던」에 대응되는 「テイル」「テイタ」를 고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으로의 과제으로써 한국어에서 본 일본어의 시제·상의 고찰, 「テイル」「テイタ」와 한국어 형태소 (는·던·있던·어/고 있)의 대응관계, 문말에 나타난 시제·상과 관형절에 나타난 시제·상의 차이점이나 관련성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注】

- 1) 「관계절」 및 「명사구 보문」이란 용어는 이익섭·임흥빈에 따른 것이다. 관형절의 피수식어가 그 관형절 내부의 한 성분이 되는 구성이 「관계절」이며, 관형절의 피수식어가 관형절 내부의 한 성분이 되지 않은 것이 「명사구 보문」이다.  
『국어문법론』 (학연사, 1983) 270~279면  
「관계절」은 일본어 「내부관계」(内の關係)에 해당되며 「명사구 보문」은 「외부관계」(外の關係)에 해당된다. 이 용어는 데라무라 히데오(寺村秀夫)에 따른 것이다. 「連體修飾節のシンタクスとその意味—その1~その4」 (『日本語・日本文化4號~7號』, 大阪外國語大學研究留學生別科, 1975~1978)
- 2) 구도 마유미에 의하면, 상은 동사의 어휘적 의미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완성성=한계성>을 가진 동사, 또 하나는 <계속성=비한계성>을 가진 동사이다. 이 두 종류의 차이점은 동작의 주체 (혹은 객체)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있다. 변화란 새로운 결과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며 그것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끝나는 운동이다. 변화면 한계성 동사, 변하지 않으면 비한계성 동사로 분류된다. 동사에는 정태(靜態)동사 등 상의 대립이 없는 것도 포함된다. (工藤眞由美) 『アスペクト・テンス體系とテキスト』(東京: ひつじ書房, 1995) 69~80면
- 3) 「시제절(時節)」 「명사화절」 「부사절」 등은 제외했다.
- 4) 미하라 켄이치(三原健一) 『時制解釋と統語構造』 (東京: くろしお出版, 1992)
- 5) 전게서 16~20면
- 6) 전게서 22면
- 7) 니와 테츠야(丹羽哲也) 「連體節のテンスについて」 (『人文研究 第49卷第5分冊』, 大阪市立大學文學部, 1997b)
- 8) 전게서 33면
- 9) 전게서 36면
- 10) 전게서 37~38면
- 11) 다카하시 타로는 동사에 시제가 없어지는 과정을 포텐셜한 과정으로써 「동사의 포텐셜한 용법이란 동작·작용 및 상태가 실현되는 개개의 특정한 시간이 습상(拾象)되고, 어떤 주체가 잠재적으로 그 동작·작용 및 상태를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용법」라고 설명했다. 高橋太郎 『動詞の研究』 (東京: むぎ書房, 1994) 72면
- 12) 김창섭은 「은」에 시제가 없는 이유를 「동사에 결합한 ‘은」은 상대시제나 절대시제에 의한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동사어간이 가리키는 상황이 온전하게 성립했음 또는 그 성립의 결과가 지속됨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국어관형절의 과거시제 -‘(았)던’을 중심으로-」 (『어학 14』,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1987)

- 13) 이효상 「다각적 시각을 통한 국어의 시상체계 분석」 (『언어 20-3』, 한국언어학회, 1995) 212면
- 14) 「던」이 관형형어미가 되는 명사에는 「가운데, 과정, 광경, 기분, 기억, 까닭, 끝, 나머지, 냄새, 눈치, 당시, 동기, 모습, 모양, 목적, 방법, 사건, 사례, 상태, 소리, 수단, 순간, 용기, 원인, 의도, 이상, 일, 장면, 정도, 진의, 찰나, 한편, 행위, 행동, 확률, 흔적, 것, 년, 놈, 대로, 데, 분, 셈, 이 식, 자, 쪽, 김, 양, 체, 척, 줄, 듯, 만큼, 차, 탓, 축」 등이 있다. 이진경 「-던의 통사제약과의미」(『국어문법의 탐구 III』, 태학사, 1996) 589면
- 15) 「가능성」의 경우 「있을」과 「타」가 대응한다.

【參考文獻】

<단행본>

- 권재일 『국어의 복합문 구성연구』(집문당, 1985)
- 남기심 『국어 관형보문법 연구』(계명대학출판부, 1973)
- \_\_\_\_\_ 『국어문법의 시제문제에 관한 연구』(탑출판사, 1978)
- 남기심·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탑출판사, 1985)
- 왕문용 「{-더-}와 관형절」(『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1986)
- 이남순 『시제·상·서법』(도서출판 월인, 1998)
- 이익섭·임흥빈 『국어문법론』(학연사, 1983)
- 이진경 「-던」의 통사제약과 의미-‘-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국어문법의 탐구 III』, 태학사, 1996)
- 한동완 『국어의 시제연구』(태학사, 1996)
- 奥田靖雄 『ことばの研究・序説』(むぎ書房, 1984)
- 金水敏 「連體修飾成分の機能」(『松村明教授古稀記念國語研究論集』, 明示書院, 1986)
- 金水敏·工藤眞由美(共著) 『時・否定と取り立て』(岩波書店, 2000)
- 工藤眞由美 「現代日本語のパーフェクトをめぐる」(『ことばの科學 3』, むぎ書房, 1989)
- \_\_\_\_\_ 『アスペクト・テンス體系とテキスト』(ひつじ書房, 1995)
- 高橋太郎 『動詞の研究』(むぎ書房, 1994)
- \_\_\_\_\_ 『現代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とテンス』(秀英出版, 1985)
- 益岡隆志 「名詞修飾表現の接續形式-内容節を中心に-」(『日本語の名詞修飾表現』, くろしお出版, 1994a)
- 三原健一 『時制解釋と統語構造』(くろしお出版, 1992)

<논문·잡지>

- 권재일 「현대국어의 {기} -명사화 내포문 연구」 (『한글 171』, 한글학회, 1981)
- 김차균 「국어시제 형태소의 의미」 (『한글 169』, 한글학회, 1980)
- 김창변 「국어 관형절의 과거시제-‘(았)던’을 중심으로」 (『어학』 제14집, 전북대 어학연구



- 소, 1987)
- 박기덕 「한국어의 관형절에 관한 연구」(『언어와 언어학』 제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1983)
- 송재목 「안맺음씨끝 ‘-더-’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유형론적 관점에서」(『국어학 32』, 국어학회, 1998)
- 이창덕 「‘더’에 관한 문제」(『말 13』,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1988)
- 이효상 「다각적 시각을 통한 국어의 시상체계 분석」(『언어 20-3』, 한국언어학회, 1995)
- 柴公也 「~テイル」の意味と用法について-對應する韓國語の表現と對象研-」(『日本學報』, 韓國日本學會, 1993)
- 寺村秀夫 「連體修飾のシNTAXと意味-その1~その4-」(『日本語・日本文化』第4・5・6・7號, 大阪外國語大學研究留學生別科, 1975, 1977, 1977, 1978)
- 丹羽哲也 「連體形のテンスについて」(『人文研究』第49卷第5分冊, 大阪市立大學文學文, 1997b)
- 野間秀樹 「〈하겠다〉の研究-現代朝鮮語の用言のmood形式をめぐって-」(『朝鮮學報 129』, 天理大學朝鮮學會, 1988)
- \_\_\_\_\_ 「〈할 것이다〉の研究-再び現代朝鮮語の用言のmood形式をめぐって-」(『朝鮮學報 134』, 天理大學朝鮮學會, 1990a)
- 橋本修 「相對基準時節の諸タイプ」(『國語學 181集』, 1995)
- 浜之上幸 「現代朝鮮語の aspek 的 クラス」(『朝鮮學報 138』, 天理大學朝鮮學會, 1991)
- \_\_\_\_\_ 「現代朝鮮語の「結果相」=狀態パーフェクト-動作パーフェクトとの對比を中心に-」(『朝鮮學報 142』, 天理大學朝鮮學會, 1992)
- 村田寬 「現代朝鮮語の<-ㄷ>連體形について」(『朝鮮學報 175』, 天理大學朝鮮學會, 2000)
- 牟世鍾 「時の表現」-その形式と意味」(筑波大學 言語學專攻 博士論文, 1994)

## 韓日語の冠形節に現れる時制・相の對應關係

— 「ル」「タ」に 對應する 「은・는・던・을」を 中心に—

宋 貞 惠

日本語の連体節のテンスを表す形式は文末と同じ「ル」「タ」であるが、韓国語は文末とは異なり、冠形節では「은・는・던・을」となり、それに「았」が加わる。本稿では、連体節のテンスの基準時点に發話時と主節時を認め、「内の關係(關係節)」を中心に兩言語の對應關係を考察した。

日本語「ル」に對應する韓国語の形式には「은・는・던・을」があり、「タ」は「은・는・던・았던」と對應する。「ル」に對應する「는・을」は共に未來の出來事に使われるが、「는」は事實性、「을」は確實性という視点で使われるようである。「タ」に對應する「있던」は、動詞の指し示す事柄が過去の特定主体による特定時間に起こったことについてよく使われ、「은」はいつ起こったのか、行為の主体が誰なのかははっきりしない場合によく使われる。また「은」は未來の出來事にも使われる。日本語の形容詞的動詞は全て「은」と對應する。状態動詞は、「ル-는」「タ-던」がそれぞれ對應する場合、基準時点と同じで、「ル-던」「タ-는」が對應する場合基準時点異なるが、意味することは同じである。日本語の状態動詞「ル」「タ」が「는」「던」と對應するのは動詞の意味によるものである。状態動詞以外の動詞が進行課程を表す場合、「テイタ」と「던」が對應する。「던」と一致する日本語の特別な形式はなく、「ル」と「는」も完全に對應しない。「는」と「던」は共に未完了を表す形式であるが、「ル」と「タ」は動詞の完成した姿を表す形式である。状態動詞以外の動詞で「タ」と「는」が對應する場合があるが、これは基準時点の違いにより起こる。韓国語の「는」は現在の様々な状態を表すことができるが、「ル」のテンスは未來であるため、既に起こっている出來事は「タ」で表される。この場合韓国語は主節時基準、日本語は發話時基準である。過去の反復や習慣を表す場合は「タ」と「던」が對應する。